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12월 15일
제2030호

주임 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대림 제3주일 (다해)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루카 3,10-13)



〈광야에서 설교하는 세례자 요한〉, 헨드릭 반 발렌

제 1 독서 스바 3,14-18ㄱ | 주님께서 너 때문에 환성을 울리며 기뻐하시리라.

화답송 이사 12 |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제 2 독서 필리 4,4-7 |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 루카 3,10-18 |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¹⁰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¹¹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¹²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자,

¹³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¹⁴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¹⁵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¹⁶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¹⁷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¹⁸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바로로 딸 콘텐츠

복음 묵상

군중도, 세리들도, 군사들도 모두 세례자 요한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루카 3,10) 세례자 요한은 이 물음에 다른 답을 합니다. 군중에게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멈추고, 나누라고 합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3,11). 세리들에게는 돈으로 저지르는 악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3,13). 군사들에게는 폭력을 멈추고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3,14). 이러한 대답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당연하게 저지르던 악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저지르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타협하던 크고 작은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돌아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스바3,14).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필리 4,4). 예수님의 성탄이 다만 해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세례자 요한의 권고를 마음에 새기며 성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멘.

(김재덕 베드로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의 12월 기도 지향

Pope's Prayer Intention



희망의 순례자들을 위하여 “희망의 순례자들로 거듭납시다”

Franciscans



“희망의 순례자를 위하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월 기도지향으로 택한 주제다. 교황은 2025년 희년을 앞두고 “이번 희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 희망의 순례자로 변화시켜 주도록” 기도하자고 초대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우리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희망이 절실합니다.
세상은 이 희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밧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교황은 ‘교황님 기도 네트워크’와 교황청 복음화부의 협력으로 제작된 12월 기도지향 영상 메시지에서 스페인어로 말하며 오늘날 세상에 절망과 불신이 만연한 이유들을 짚었다. 교황은 “내일 자녀들의 끼니를 챙겨줄 수 있을지 모를 때가 있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은 직장으로 이어질지 불안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이어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 되물었다.

“희망은 닻과 같습니다. 밧줄 달린 닻을 던져 놓으면, 모래 속 깊이 가라앉아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이라는 밧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이 와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죠.”

우리를 통해 희망이 모든 이에게 전해지도록 합시다

“삶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삶을 경축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여정에서 다가오는 희년은 우리 삶의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희망이란 선물로 우리 일상을 채우세요. 우리를 통해 희망을 찾는 모든 이에게 그 선물이 전해지도록 합시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영상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텅 빈 찬장 앞에서 한숨 짓는 여인의 근심 어린 모습,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방황하는 여학생의 불안한 눈길이 우리 마음을 울린다. 그러다 그들은 각자의 여정에서 “희망의 순례자들”을 만난다. 희망의 순례자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위로하며, 희년 내내 활짝 열려 있는 성문(聖門, Porta Santa)을 향한 영적 순례의 여정에 함께하도록 초대한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했다.

“잊지 마세요.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번 희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 희망의 순례자로 변화시켜 주도록 기도합시다.”**

2025년 희년, 희망하며 함께 걸어가는 초대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5년 희년은 축제와 성찰이 어우러지는 은총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교황과 교회는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한다. 교황은 교황청 복음화부 세계복음화부서 장관 직무 대행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시기에 사회의 희망이 희미해졌음을 지적하며 “우리는 우리가 받은 희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희년은 우리 안에 희망을 다시 북돋우고, 그 은총의 빛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시대의 세상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1 성탄 판공성사 안내

- 일시 : 12월 17일(화)
- 참회 예정 및 양심 성찰 : 오후 1:30
- 판공성사 : 오후 2시 - 5시
- 저녁 7시 미사 및 양심 성찰 · 미사 후 판공성사
- 양심 성찰, 미사 시간에 맞추어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우편물 받지 못하신 분 알려주세요

성탄 판공성사표와 2025년도 교무금 약정서를 각 가정으로 11월 30일에 발송하였습니다.
성사표와 교무금 약정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하상회·안나회 월례 회의 및 성탄 잔치

- 일시 : 12월 15일(일) 오전 11:30 (친교실)

3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12월 15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4 옛 교우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 일시 : 12월 15일(일) 오전 11:30 (B-1)
- 1974년, 즉 50년 전에 워싱턴의 미국 수도원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드리던 우리 본당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 신앙 생활과 옛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립니다. 함께해 주시면 너무 반갑겠습니다.
- 문의 : 주 레지나 (703) 273-7725
김 스테파노 (703) 362-0784

5 사도 임원 회의

- 일시 : 12월 20일(금) 오후 8시 (A-1,2)

6 루카회(60대 남녀 교우) 월례 모임 및 송년회

- 12월 월례 모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일시 : 12월 22일(일) 강대성 부회장택
- 문의 : 박요셉 (703) 609-6022

7 요한회(50대 남녀 교우) 월례 모임 및 송년회

- 일시 : 12월 22일(일) 오전 11:30 (B-2,3)

8 2025년도 바오로딸 성경학교 1학년 신입생 모집

- 내용 : 신약/구약 입문과정 2년
- 공부 방법 : 우편통신 또는 E-Learning 중 선택
- 등록 : 주일 미사 전후 친교실 또는 구글폼으로 (단체 10명 이상 등록 시 입학등록금 20% 할인)
- 문의 : 교육부 운영팀 로사리아 (703) 850-2968

자세한 정보는 QR코드 스캔
<https://forms.gle/K2yPfv2vUJ78NurFDA>



9 동전 모으기 저금통 배부 (복지부)

- 원주 카리타스 후원을 위한 종이 저금통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 동안 동전을 모아 주님 공헌 대축일(1월 5일)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10 주일학교 CCD 첫영성체반 등록

- 2025년도 첫영성체반 등록을 받습니다.
- 대상 : 3 - 6학년 주일학교 학생
- 등록 : bit.ly/spc1st_2025 (12월 29일까지)
- 첫 수업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오후 7시
- 수업 기간 : 2025년 1월 8일(수) - 6월 1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8:30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 624-8196

11 2024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송년의 밤”

- 일시 : 12월 27일(금) 저녁 7시
- 참가비 : \$15/인당 (10세까지 어린이와 70세 이상 교우분들은 무료)
- 티켓 : 1. 구역장님이나 봉사자에게 신청 또는 2. 현장 판매 (12월 15일/22일 매 미사 후 친교실 부스에서 구입 가능)
-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안에서 가까운 분들, 오랜만에 함께 하고픈 분들과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당일 미사는 오후 6시에 봉헌됩니다.

12 2025 을사년 본당 달력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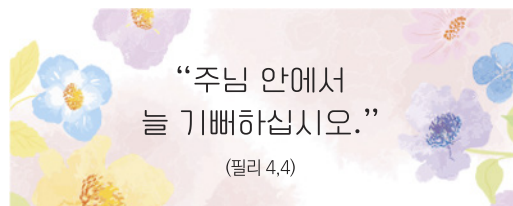
- 2025년 새해 달력을 드립니다.
- 배부 : 대림 제4주일(12월 22일) 매 미사 후 친교실
- 각 가정당 1개씩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쉬는 교우 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분들에게는 한 부씩 더 드리겠습니다.

13 2025년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행진)

- 일시 : 1월 24일(금) 오후 12시 성당에서 출발(점심 제공)
- 내셔널 몰에서 U.S. Supreme Court까지 행진합니다. 따뜻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1월 19일까지(친교실, 사무실) 선착순 55명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 376-1372

14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

- 본당 입구에서 봉헌 접수를 받습니다. (문의 : 제대회)
- 봉헌해 주시는 모든 봉헌금은 초와 제병, 제주 구입 및 성당에서 필요로 하는 제대 꽃, 성물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 미사 안내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일시 : 12월 24일(화) 오후 8시 (구유예절로 시작)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 일시 : 12월 25일(수) 오전 8시, 10시
- 학생미사 : 오전 10시 (친교실)

2차 헌금 안내

이번 주 대림 제3주일(12월 15일)에는 어려운 이웃 본당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12/15 이번 주	센터빌 4구역
12/22 다음 주	페어팩스 1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12월 8일(대림 제2주일)

봉헌금	\$ 7,951.00
교무금	\$ 13,615.00
교무금(신용카드)	\$ 5,640.00
감사 헌금	\$ 410.00
2차 헌금	\$ 5,704.00
온라인 봉헌	\$ 7,510.00
합계	\$ 40,830.00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2024년 12월 19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12월 20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12월 22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바이블 무브 - 마태오 복음서: “가난하고 낙약한 삶의 현실 안으로 하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 홍인영 마리코로스 수녀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화, 금</td> <td>수</td>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